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의료인
전문성을 갖춘 책임감 있는 의료인
사회에 봉사하며 존경받는 의료인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소식지
Ewha Woma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 3:10)

발행인 : 박혜영 편집인 : 이화영 발행 :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서울 양천구 목6동 911-1 전화 02-2650-5703~4 팩스 02-2653-8891

제 25 호 < 2010.9 >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소식

◎ 2011학년도 수시모집 최종 합격자 발표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10월 6일(수) 2011학년도 수시모집 M.D.과정(의무석사과정) 최종합격자 46명을 발표하였다.

일반전형 합격자의 출신대학 분포는 이화여대를 비롯하여 국내외 최상위권 대학이 골고루 분포하였다. 출신학부별 분포 조사에서는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건강과학대학, 약학대학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특별전형에서는 외국대학출신 성적우수자 전형으로 2명이 선발되었다.

박혜영 의학전문대학원장은 “우수한 지원자가 매우 많아 모집 인원만 선발하기가 아쉬울 정도였다”며 “아쉽게 탈락한 지원자들은 올 해 정시모집에 도전하여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011학년도 정시모집 원서 접수는 오는 10월 12(화) 부터 14일(목) 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의학전문대학원 (www.ewhamed.ac.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교과부 선도연구센터 육성 사업 선정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선도연구센터 육성 사업 기초의학 분야에 ‘조직손상방어연구센터’가 선정되었다. 선도연구센터 육성 사업은 대학의 산재된 연구역량을 결집해 장기간 특정 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구분야와 형태에 따라 이공학, 기초의학, 학제간 융합 등 3개 세부 분야로 구성된다.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조직손상방어연구센터’가 기초의학 분야에 선정되어 최장 9년간 7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 역량강화를 위한 거점 연구 조직을 육성하게 된다.

조직손상방어연구센터는 조직 손상 방어 시스템의 핵심 기전인 사멸세포 인식 및 탐식작용(Efferocytosis)을 통한 내인성 치유 네트워크, 세포 내인성 항산화/항염증 시스템, 지질대사 조율을 통한 병변 보호 기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염증 치유/항산화/조직 복구 신호체계의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극대화하는 혁신적 조직 손상 개선 기술 개발이 기대된다.

조직손상방어연구센터 단장을 맡고 있는 생리학교실 이지희 교수는 “조직손상방어연구센터가 이번 선도연구센터 육성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기초과학자 연구 인력의 양성과 연구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게 돼 글로벌 조직 손상 방어 연구센터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곰달래감자탕 하영식 대표, 이화의전원에 1천만원 장학금 전달

폐질환을 앓다 이대목동병원에서 병을 치료한 하영식 대표가 의학전문대학원에 장학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신월동에서 ‘곰달래감자탕’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하영식 대표

대표는 지난 8월 24일 이화의학전문대학원(대학원장 : 박혜영)을 찾아 박혜영 의전원장, 이진화 교수, 교직원과 부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학생들에게 1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심각한 폐질환으로 한때 생사의 기로에 섰던 하 대표는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이진화 교수를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 장학금 기부의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0여 년간 매달 독거 노인들을 초대해 무료 급식을 하는 등 평소에도 불우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온 하영식 대표는 처음에는 익명으로 장학금을 기부했지만 이러한 나눔이 감자탕의 구수하고 얼큰한 맛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실명을 밝히게 되었다. 하 대표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제2의 삶을 살게 해준 병원과 학교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면서 “제 뜻을 잊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아픈 이들을 치료하는 훌륭한 의사가 되길 바란다”며, 하대표는 앞으로도 의전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뜻을 밝혔다.

◎ 김병순 장학금 수여식 개최

‘2010-2학기 김병순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10월 8일 12시에 의학관 A동 학장실에서 김병순 선생님과 수혜학생 및 박혜영 의전원장, 교무부원장, 기획부장, 학생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매년 의대에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는 김병순 선생님은 2학기에도 의학전문대학원 1학년 김주희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 2010년 M4학년 OSCE-II/CPX-III,IV 시행

2010년 M4 OSCE-II/CPX-III가 8월 25일(수)~27일(금) 3일간 & CPX-IV가 8월 31일(화)~9월 1일(수) 2일간 의학관 B동 8층(EMSC, PBL-Room)에서 시행되었다. OSCE는 임상 실행능력 평가의 한 방법으로 두세명의 학생들이 일련의 station을 돌며 문항을 수행하게 하는 시험이다. 이번 OSCE에는 전체 70명의 학생들이 그룹을 나누어 한 문항 당 5분씩 총 12개의 문항을 수행하였다. 또한 CPX는 환자 진료를 모의적으로 수행하면서 학생들의 임상 술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본교는 서울-경기 컨소시엄에 소속되어 있다. 컨소시엄 산하의 훈련받은 표준화 환자(SP)들이 시험에 투입되었으며, 12명 한 조로 무작위 배정된 학생들은 한 사례 당 16분씩 총 6개의 사례를 가지고 시험을 치렀다. 이후 9월 6일(월)~10일(금) 오후 3시 이후부터 10층 강의실에서 박미혜, 배정호, 전루민, 오지영, 정순섭, 이희승, 조수진, 류동열, 황승균 교수가 OSCE 문항 강의를 진행하였다.

◎ 의료인을 위한 BLS(Basic Life Support) 과정 개최

대한심폐소생협회(KACPR)와 미국심장협회(AHA)가 승인한 BLS Training Site인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9월 11일 토요일에 의료인을 위한 BLS(Basic Life Support) Provider for HCP(Health Care Provider) 과정을 개최하여 12명의 BLS-Provider를 배출하였다. 의학전문대학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개설된 본 과정은 10월 9일과 11월 6일에도 개설될 예정이며, 의사 및 간호사를 대상으로는 10월 15일에 개최 예정이다.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2010년에 11월 6일 과정까지 포함하여 총 11회의 BLS-P를 개최하였고, 총 107명의 BLS-Provider를 배출하였다.

의료인 교육과정은 2005 AHA Guideline에 의해 진행되며, 총 8시간의 교육시간동안 AHA에서 제작한 교육 동영상을 이용한 실습 및 test로 이루어지며, Provider 과정 교육 참여 후 당일 시행되는 3회의 Skill test와 1회의 Written test에 합격한 교육생에 한해 American Heart Association(AHA, 미국심장협회)에서 인증하는 영문자격증이 발급되며 2년간 자격이 인정된다. BLS-Provider과정은 최근 다양한 평가기관에서 의료직의 BLS-P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여러 의료기관에서 의사직의 필수 교육으로 도입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앞으로 교육 요구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4학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대비 Self study room 개설

이화의학시뮬레이션센터에서는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대비를 위한 Self study room을 개설하였다. Self study room은 OSCE 항목과 관련된 실습



〈 OSCE self study room 전경 〉

을 스스로 충분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각 항목에 맞는 모형 및 실습도구, 실습 관련 최신 동영상상이 설치되었으며, 각 항목마다 주요 학습 목표 및 실습관련 tip, 주의사항 등의 안내문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

Self study room의 이용은 시험일을 기준으로 응시일이 같은 학생을 한 조로 배치하여 함께 실습을 진행하며 함께 공부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실습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시험일 별로 실습 조를 구성하여 실습 일정을 배치함으

로써 시험 전 충분한 실습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실습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문점 등은 각 항목별 담당 교수에게 직접 질문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hotline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각 담당교수는 학생의 질문에 전화상으로 답변하거나, 직접 방문지도 또는 외래나 수술실 등 각종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서 OSCE와 관련하여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어 학습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Self study room의 개관시간은 오후 2시에서 오후 6시까지(유동적으로 조정)이며 사용 전 예약해야 실습 지원이 가능하다.



학생 및 교수 소식

[교/수/소/식]

* 신입 교수 (2010년 9월 1일자)

소 속	이 름
병리학 교실	심효섭 교수

* 퇴직 교수 (2010년 8월 31일자)

소 속	이 름	구 분
산부인과학 교실	안정자 교수	정년퇴직
안과학 교실	이정희 교수	의원퇴직

* 서현숙 의료원장, 글로벌 리더상 수상



서현숙 의료원장이 미래 우리나라 국제경쟁력을 이끌 '글로벌 리더'로 선정되었다.

서현숙 의료원장은 27일 한국지속경영평가가 주관하는 '2010 글로벌 리더상' 시상식에서 고객만족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글로벌 리더상은 국내 기업 중 우수한 글로벌 리더를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된 상으로 지식경제부가 후원하는 권위 있는 글로벌 경영인 상이다.

의료원 동정

◆ 이대목동병원 개원 17주년 기념식 개최

이대목동병원(병원장 : 김승철)은 6일 개원 17주년을 맞아 개원 기념식을 갖고, 향후 지속적인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병원으로 재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서현숙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승철 이대목동병원장 등을 비롯한 10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기념일을 자축했으며, 모범직원 및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이화의료원 홍보 모델로서 이대여성암전문병원과 이대목동병원 위암·대장암협진센터 인지도 제고에 기여한 마취통증의학과 우재희 전공의가 의료원장상인 특별봉사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원무과 박혜영 씨가 친절상, 간호부 이은옥 씨가 화합상을 수상하는 등 총 103명이 수상했다.

김승철 이대목동병원 원장은 개원 기념사에서 “지난 1년은 위암, 대장암 분야를 비롯한 중증 질환 분야 경쟁력 강화와 병원 체질 개선 활동, 외래 및 병동 재배치 및 첨단 기기 도입 등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한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서현숙 의료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그동안 이대목동병원과 이대여성암전문병원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인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했기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향후 이화의료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과감한 변신과 중단 없는 경영혁신활동을 통해 ▶이대여성암전문병원의 독보적인 위상 구축으로 세계적인 여성암전문병원으로 도약 ▶제2의 전문화 영역인 위암, 대장암 분야 경쟁력 강화 ▶



각 센터 및 진료과별 스스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자체 성장 동력 확보 ▶고객 중심 마인드 체질화를 위한 교육, 시스템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해나갈 것”고 밝혔다.

◆ 이대목동병원 위암·대장암협진센터, ‘메디컬코리아 대상’ 수상

이대목동병원 위암·대장암협진센터(센터장 : 김광호)가 지난 9월 14일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2010 메디컬코리아 대상’ 시상식에서 ‘특화암센터 부문’ 최고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경제TV, 한경닷컴이 주최한 이번 ‘2010 메디컬코리아 대상’은 전문 치료센터 및 진료과목별 명품 병·의원을 가리는 시상제도다.

이대목동병원 위암·대장암협진센터는 ‘특화암센터 부문’ 종합평가 지수 비교분석에서 의료 소비자 만족도가 가장 높은 병원으로 선정돼 수상하게 됐다.

특히 이대목동병원 위암·대장암협진센터는 첫 방문 당일 진찰은 물론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와 암 진단 후 1주일 이내 수술 등 고객 중심의 신속한 진료 시스템으로 차별화에 성공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 이대목동병원, 고등학교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이대목동병원(원장 : 김승철)이 응급 상황 발생시 필요한 심폐소생술을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대목동병원은 지난 18일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신목고등학교를 찾아가 학교 학생회 임원 29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 처치 요령 등 체험 학습 위주의 눈높이 교육을 실시했다.



실제 심정지 발생 후 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실시될 경우 소생률이 50%에 이를 정도로 심폐소생술은 중요하지만 국내에서는 그 중요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교육을 담당한 응급실 전제진 주임간호사는 “응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주변에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요령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대목동병원은 이번 신목고등학교 방문 심폐소생술 교육이 학교측과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받음에 따라 내년부터 지역 주민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정례화하는 한편, 교육 대상과 실시 횟수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2010년 Ewha Medical Care

◆ 하계 봉사활동 보고 - 캄보디아

이화여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매년 이화의료봉사단을 구성해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0년에는 정구영 단장을 필두로 캄보디아로 해외봉사를 다녀왔으며 특히 이번 방문에 큰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내과학교실 문영철 교수로부터 생생한 후기를 들어 본다.

[문영철 교수]

이화의료선교단(Ewha Medical Care; EMC)은 1989년부터 해외의료봉사단을 해외의 낙후된 지역에 파견해 진료 봉사를 해오다가, 2007년부터는 1년에 2차례 정기적으로 해외 의료봉사를 위해 여름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우르겐치 지역, 겨울에는 베트남의 석산 지역을 방문하여 의료봉사를 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김길현 선교사님과 정구영 EMC 단장님과의 교감에 의해 선교사님의 사역지인 캄보디아의 캄뵁스쁘에 있는 이화스랑 학교와 프놈펜의 쓰레기 매립지역의 빈민촌에서 7월 20일부터 27일까지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봉사단은 정구영 EMC 단장님과 5명의 의전원 교수, 간호사, 치위생사 등 병원직원, 본교학부학생 5명, 의전원생 5명과 자원봉사자 2분 등 총 20분이 수고해 주셨으며, 내과, 외과, 소아과, 부인과, 치과, 이비인후과 및 안과진료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번 활동은 처음으로 방문하는 캄보디아 현지의 의료상황을 파악하여 향후 EMC의 캄보디아 봉사의 방향을 가늠하고, 우리의 진료를 통해 김길현 선교사님 사역이 더욱 빛날 수 있게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봉사단원이 처음 캄보디아를 방문하기 때문에 이번 활동을 통해 캄보디아를 가슴에 품고 돌아오고자 하였고, 저 개인적으로는 향후 캄보디아에 정기적으로 봉사단 활동을 진행할 목표가 있었기에 이번 방문에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 후 다음날인 7월 21일은 프놈펜 시 탐방과 봉사장소에 대한 사전답사로 시작 되었습니다. 프놈펜시 탐방에는 김길현 선교사님의 인도로 먼저 'Genocide Museum S-21'을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캄

보디아의 아픈 역사를 접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학교를 수용소로, 교실을 고문의 장소로 바꾼 후, 동족 200만명을 살해한 아픈 역사의 현장, 킬링필드로 기억되는 캄보디아의 슬픈 상처를 봉사단이 느끼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프놈펜 현지에서 소아과 전문의이신 김우정 선교사님이 헌신하고 있는 '헤브론 병원'을 방문하여, 캄보디아의 열악한 의료현실 가운데서 캄보디아인들의 건강과 마음을 돌보는 현지 사역자들의 노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22일부터 3일간은 본격적인 의료봉사로써 건강검진과 진료를 하였고, 첫 이들은 김길현 선교사님이 학교사역을 하고 계시는 캄똥스쁘의 이화스랑 학교에서 인근 주민과 학생 및 아동들에 대한 진료, 고혈압, 당뇨 및 구강보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화여대 본교학생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학생, 아동 및 그 부모들과 놀이, 게임 등 즐거운 시간도 가졌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상태는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도 꽤 있었으나, 대부분은 영양결핍으로 인해 발육부진, 신체왜소 등 불량한 신체상태를 가지고 있었고, 적지않은 수의 아동들은 피부질환이나 상처를 방치하여 감염이 심해져 간단하게 치유될 것이 수술 등 큰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강렬한 태양 탓인지는 몰라도 백내장 등 안과질환이 많아서 향후 봉사시에는 안과진료의 강화라는 과제도 받았습니다. 의료봉사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프놈펜 시내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장을 생활기반으로 생활하고 있는 빈민촌에서 진료를 하였습니다. 이곳도 영양상태나 질병상태는 캄똥스쁘나 비슷하였으나, 폐기물 혹은 각종 파리, 모기 등 쓰레기와 관련한 벌레들로 인한 피부질환과 전염성 감염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많은 의료봉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역시 절대적인 의료지원이 부족한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어떤 형태로 이들을 도와야 할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봉사기간 동안 약 800여명을 진료하였는데, 진료의사가 6명이었음을 감안하면 벅찬 것이었지만, 현지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김길현 선교사님과 함께 교회에서 사역하는 현지 청년들, 그리고 첫 이틀간 치과진료를 도와주신 현지

치과의사들의 도움으로 힘들지 않게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해외 의료봉사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우리가 현지에 무언가를 봉사하고 왔다는 뿌듯함 보다는, 그들을 통해 우리를 되돌아보고 현지에서 노력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우리의 비전도 세워보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많았



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로 캄똥스쁘 봉사에서 캄보디아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되었고, 헤브론 병원과 이화스랑 학교에서 사역하시는 여러 선교사님, 이번 의료봉사를 위해 바쁜 사역 중에도 모여서 열심히 도와주신 또 다른 선교사님들의 모습에서 이번 봉사에 참여한 봉사단원의 가슴에 캄보디아를 품게 되는 비전과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특히, 의료봉사를 마치고 프놈펜에서의 마지막 날에 김길현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프놈펜 대학 근처의 조그만 교회의 주일예배에서 캄보디아 청년들이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모습과 교회 주변에 울려 퍼진 성령의 감동과 함께하였던 'How Great Our God'의 찬양 속에서, 그리고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는 빈민가의 어둡고 허름한 학교시설에서 고단한 캄보디아 사람들을 돌보고자 노력하였던 봉사단원들의 땀방울 속에서, 캄보디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단원을 가슴속에 자리잡은 캄보디아에 대한 사랑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며 보고를 마칩니다.

대외협력위원회 소식

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모금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외에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국제교류장학금, 글로벌인재육성기금, 각 교실 기금 등 다양한 형태의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위해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등 약정현황]

〈2010년 7~9월〉

기금명	후원자	약정액	비고
조성래장학금	조성래	3,000,000	학부형
이화사랑장학금	박순희	3,000,000	동창
국제교류(의전원)장학금	안정자	2,000,000	의대교수
*소아과학교실 발전기금	이승주	30,000,000	의대교수
	이수정	1,000,000	동창
*의과대학동창회(29기) 장학금	서정은	1,000,000	동창

*소식지 24호 정정내용

알/림/니/다

✚소식지 원고 모집

-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소식지는 분기별 (3/6/9/12월) 발행되며, 소식지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jkkim9999@ewha.ac.kr)
- 소식지 내용은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홈페이지(<http://www.ewhamed.ac.kr>) 내 학교소개/소식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동창 주소 변경 문의 (이화의대동창회 사무실 TEL. 02) 2650-5782)